

## 실천이 충실할때 「켈」과 「유니폼」은 문제밖의 일



이화대학병원  
간호부장 김 문 실

간호원과 「켈」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생각해 보았다.

간호원은 정말 「켈」을 꼭 써야만 간호원인가? 진실로 현재의 전인간호를 계획할 줄 알고 행할 줄 아는 즉 현사회에서 요구되는 질적인 간호원이 있어서 이 사람이 「켈」을 쓰지 않고 근무한다면 이 간호원을 보고 “당신은 간호원 아니다”라고 할 것인가?

이러한 생각에 뒤 잇는 의문점이 있다면 “간호보조원은 왜 「켈」을 쓸려고 하는가? 더욱이 「켈」에 줄은 왜 들르나? 간호원과 무엇인가 좀 다른, 특이하게 표현되는 것을 택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?

보수적이라 일컫는 영국에서는 Registered Nurse 가 되면 특히 수간호원이 되면 그 병원과 개인을 맡아주는 엄숙하고 위엄이 있는 모양의 「켈」을 쓴다. 모든 것이 허영되지 않고 실질적이라는 그곳에서는 이 엄숙하고 위엄이 있는 「켈」을 쓴 사람은 그 역할을 톡톡히 할

줄 안다.

근무하는 동안은 개인을 생각하기 앞서 뚜렷한 신념을 갖고 “이 병원이 내 병원이고 이 환자가 내 환자이고 이 직원이 내 직원”이라는 등의 알뜰한 사고방식에 배운 지식을 활용 실천하며 환자간호에 임하고 있다. 이렇게 자신을 갖고 철저한 간호를 행하는 간호원들이 「켈」을 벗고 근무한다고 해서 간호원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.

가보지는 못했지만 미국에서는 간호원들이 「유니폼」이나 「켈」을 쓰지 않고 근무에 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. 꼭 흰색의 「유니폼」이 아니고 흰색의 「켈」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병원의 한 「멤버」로써 그 기능을 다 한다고 하면 간호원을 상징하는 「유니폼」이라기 보다는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느 종류의 옷이라도 괜찮치 않을까? 이러한 관점에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모양의 머리라면 「켈」이

라는 것은 더욱 거처장스러운 것이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다보니 간호원이라 해서 「켈」을 꼭 쓸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 또한 「켈」과 「유니폼」을 벗고 근무하는 간호원을 본다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. 오히려 이런 차림으로 학창시절때 배운 것을 거침없이 이행해서 무엇인가 좀 더 나은 환자 간호에 임하여 무엇인가 환자를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환자가 있는 동안 간호원은 불멸의 존재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될 것이라 본다.

비록 「켈」을 쓰지 않고 「유니폼」을 입지 않았더라도 보는 설사 어느 사람이 즐이 있는 「켈」을 쓰고 흰 「유니폼」을 입었다 하더라도 환자는 누구나 진실된 간호원이며 누구가 환자에게 필요한 사람인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.

질적인 간호원의 조건은 풍부한 것을 올바르게 배우고 노력하고 익히고 실천하는데 있다고 본다. 특히 “실천”이라는 점에 강조를 하고 싶다. 배운 것을 실천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고…….

“실천의 결핍증”이 없을 때 「켈」이나 「유니폼」은 문제밖의 일이라고 본다.

이러한 질적인 간호원의 이야기가 먼 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 서로 노력하여야 되겠다고 본다.